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 가운데 문안드리며 장마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한국 소

식을 듣는데, 동역 교회와 동역자님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강건함으로 세

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함께하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연재해와 경제 위기와 물가 상승, 범죄 등등 마음 불편한 소식들과 이 나라는 지

난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당선되어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실망과 화폐가치

는 떨어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

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높이고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

니다.

5월 하순 인터넷 접수부터 시작한 거주비자는 6월 1일 서류접수(인터뷰)를 했고

6주간의 기다림 끝에 어제가 비자 만료일이라 이민국에 갔습니다. 거주비자 승낙

은 났다고 우편으로 거주증이 집으로 배달된다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거주 비자 통

과했다는 서류 한 장을 주었는데, 6개월 연장이었습니다. 그래도 거절되지 않고 6

개월 이 땅에 더 머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6월1일 인터뷰하고 돌아

와서는 한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와 같은 증상으로 목이 아프고 고열, 기

침, 미각상실....... 고생했는데, 타이레놀과 3주의 시간이 지난 다음 기침이 멈추고

좋아졌고 4주가 지나서 미각이 느껴지면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시골이라 A국에서도 땅을 보면 씨를 뿌리고 기숙사 베란다에 나무

상자에 포도나무를 심으며 성경의(마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공감합니다. 영혼들

의 마음이 옥토이기를 바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나누면서 요즘은 씨

뿌리고 가꾸는 새로운 영혼들과 연결되어 교제하고 있습니다. F부인은 옷 수선을

가게를 하는데 5년 전부터 수선할 일이 있으면 맡기고 약속 날짜에 맞춰서 찾으러

가는데 이번에는 완성을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벽에 붙은

아이들 사진은 손자들인데 이제 커서 대학생이고, 아들이 2명이고, 주말에는 남편

과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에 땅에 농사 지으러 다닌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자동

차가 있으니 같이 한 번 가자고 약속하면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F부인 (58년생)

의 남편은 J(72살)는 신장이 나빠서 혈액을 투석하고 있고, 막내남동생과(딸 농업

전공 대학생) 여동생의 땅이 나란히 있는데, 여동생(58살, 결혼한 아들 가정, 32살

직장인 딸) S는 이혼했고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5월 말에는 F부인 부부를 태우

고 둘러보고 왔고(한인 목사 사역자 가정과 동행) 6월 말에는 E시에 가져온 들깨

모종과 고구마, 쑥갓, 호박씨를 구해서 심었습니다. 이번 주에 갔더니 들깨와 쑥갓,

고구마는 물을 자주 주지 않아서 많이 커지 않았는데 호박은 싹이 잘 났습니다. 주

의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

요.

E시의 S네에 6월 말에 항공편을 이용해서 다녀왔는데, 심은 들깨는 싹이 잘 나

서 옮겨 심었고, 우리 집 베란다에 심은 은행은 싹이 났는데 S의 땅에 심었던 은행

은 물도 자주 주지 않고 땅도 딱딱해서 은행(움이 튼 것도 있고 뿌리가 생긴 것 등)

20알을 정도를 찾아서 상자에 심고 자주 물을 주라고 했더니 나무 싹이 자라고 있

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S는 2011년 가을 한국 여행에서 본 노란 은행나무의 아

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이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영혼

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 가까운 이웃에 정원 텃밭이 넓은 집 G와(미혼 52살) 교제하면서

집 베란다 화분에서 키운 들깨 모종을 옮겨 심고 물 주러 다니고, 이 나라 명절에

소소한 선물을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영혼이 되기를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H부인은 얼마 전 코로나? 같은 감기로 기침이 멈추지 않고 장협착 수술 이후 온

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배가 점점 부른 상태로 누워서 자면 불편해서 거실 의자에

앉아서 수면을 취한다고 하면서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자녀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

에 의지하여 장협착이 풀리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해 사역 계획 중에 한국요리 관련 책 출판은 자료가 바이러스로 인해 삭제되

어 무산되고, 올해 예수 믿는 현지인 중에서 한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자 한 계획은 장소 임대가 안 되고, 몇몇 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목사들이 성도

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협력이 어려워서 계획에 그쳤지만, 사람이 마

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께서 저를 통

해 하실 일을 간구합니다.

A국의 H자매의 어머니 G부인이 10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94년부터 여

러 사역자의 섬김을 통해 주께 돌아온 한 부모 가정으로 주일 모임 안에서 어머니

기도모임으로 M과 영적 전우였는데 M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

별한 두 딸의 가정과 주일 모임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견고하며

오래 슬퍼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땅의 영혼들을 만날 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 있

어서 이 영혼들에게 영적 권위와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빛

으로 소금으로 교제하도록, 파송 단체의 마무리와 건강(비염, 중이염, 오른팔의 불

편함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땅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

진 자라” (롬 1:14) 사도 바울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과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삶을 크게 느끼며, 땅 끝이 주께 돌아오는 사역에 동역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23. 7, 15. 김에스더 드림